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3차회의 정세브리핑(2025.11.29)

발제: 채민석

### <팔레스타인>

#### ○ 불안정한 휴전

- 가자지구의 정부 언론 사무소는 이스라엘이 10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공중, 포병 및 직접 사격을 통한 공격을 통해 적어도 497번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도
- 1단계 휴전안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적대 행위 종식,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에 대한 모든 원조 봉쇄를 해제하고 원조 분배에 대한 간섭을 중단, 'yellow line'으로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의 조건 위반
-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10월 10일 정오에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347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889명을 부상
- 10월 29일,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한 총격전 이후 5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09명 살해
- 11.26까지 확인된 총 사망자: 20,179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소 69,785명
- 하마스는 20명의 살아있는 이스라엘 포로를 모두 석방했고 28명 중 26명의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반환
-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필요한 식량 원조의 절반만이 현재 가자지구에 도달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구호 기관 연합은 총 원조 전달이 휴전 하에서 합의된 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
- 이스라엘은 균형 잡힌 식단에 필수적인 육류, 유제품 및 채소를 포함한 필수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차단하는 대신 간식, 초콜릿, 감자칩, 청량음료와 같은 영양가 없는 식품이 허용(11.26 Al Jazeera)

#### ○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 안보리 채택(11.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0개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
-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11.18 BBC)
-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중동국들을 결집, 이들과 결의안 찬성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반대에 따르는 부담감을 증폭(11.18 연합뉴스)
- 독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 독일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스토훌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입의 30%를 제공(11.17 Al Jazeera)

#### ○ 국제안정화군(ISF) 병력 확보 문제

- 안보리 결의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는 물론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인 무장해제'를 ISF의 임무로 명시
- 유럽 지도자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긴 전쟁 후 가자지구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11.14 The Guardian)
- ISF 참여 후보국인 이집트·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자국 군대와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경계(11.18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의 참여 배제(11.10 The Guar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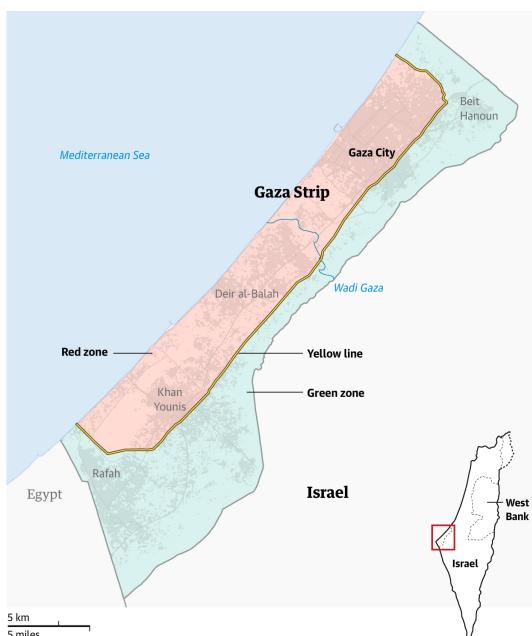
- 요르단은 수백 명의 경보병과 최대 3,000명의 경찰관을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암둘라 국왕은 요르단이 가자지구와 "정치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파병을 명시적으로 배제(11.14 The Guardian)
- ISF의 임무 범위를 그린존에만 한정

### ○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고 지적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하며 결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
-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와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결의안이라며 거부(11.18 연합뉴스)
- 10월 말 여론조사에서 전체 팔레스타인인 70%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재개하게 될지언정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강력하게 반대. 가자지구 주민들의 55%도 강력 반대(10월 22~25일 팔레스타인 정책여론조사연구소)

### ○ 미국의 가자지구 분할 통치 계획 유출(11.14 The Guardian)

- '그린존': 이스라엘군과 국제군의 군사 통제 하에 놓이며, 이곳부터 재건이 시작될 예정
- '레드존':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된 지역으로, 재건 계획에서 제외된 채 폐허로 남겨질 예정
- 분할선: 이스라엘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yellow line'을 경계로 가자지구 동부 지역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외국 군대가 배치
- 가자지구 인구 거의 전체인 200만 명 이상이 가자지구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해안을 따라 좁게 형성된 '레드존'에 있음, 미국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그린존을 재건하여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주시킬 계획
- 트럼프가 약속했던 '휴전을 영구적인 정치적 합의와 가자 전역에 걸친 팔레스타인 통치로 전환'에 상충되는 안
- 중재자들은 분단된 가자지구에서 정기적인 이스라엘의 공격, 고착화된 점령, 팔레스타인 자치 부재, 팔레스타인 주택 및 공동체의 제한적인 재건 등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 서안지구 강제 이주

-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 군대가 올해 1월부터 제닌, 툴카렘, 누르 샘스 난민 캠프에 있는 32,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 이주 시켰다는 보고서 발표(11.20 Al Jazeera)
- 2023.10.7 이후 적어도 1,001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정착민과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살해(11.12 The Guardian)
- 많은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목표는 웨스트 뱅크를 합병하는 것. 지난 10월, 이스라엘 의회는 점령된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예비 승인(11.20 Al Jazeera)

##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9.22, 10.3에 이어 11.28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총파업 예정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파업 또는 집중집회 예정

## <중동>

### ○ 무슬림 형제단과 이집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무슬림 형제단의 일부 지부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령
- 하마스와의 연관성 및 미국인이나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 등을 구실
- 무슬림 형제단은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금지(11.25 BBC)
- 이재명의 이집트 순방과 내년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출신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있을지에 주목
-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음
-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이집트가 가지지구 재건 활동에 있어서 한국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 했고 한국도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함(11.21 KBS)

## <동아시아>

### ○ 중일 갈등 고조

- 11.7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후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목을 베겠다”
- 중국의 세번째 취역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실사격을 포함한 첫 해상 실전훈련
-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일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까지 전개 할 가능성도 거론
-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11.20):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조항 변경을 검토
- 그 외에도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 도입 등이 주요 안건(11.20 문화일보)
-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11.27 중앙일보)

### ○ 핵잠수함 배치

- 한·미가 11.14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
-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

-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11.28 경향신문)
-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핵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
- 양안 총돌 시 “제3국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역할을 언급(11.16 한국일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트럼프의 평화구상안

- 11.19(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안이 누출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60만 명으로 축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나토 또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전쟁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데다 최근 러시아 공격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적당한 선에서 젤렌스키가 태협할 것이란 전망(11.24 오마이뉴스)
  - 젤렌스키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에 찬성. 우크라이나 정규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 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제공받도록 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여지도 남김(11.25 BBC)